

월요논단



김 동 언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얼마 전 제주도청과 경기도청 간에 쓰레기 문제로 공방이 오간 적이 있다. 필리핀에 수출되었다가 되돌아온 쓰레기가 경기도 평택항에 쌓였는데 거기에 제주도의 압축폐기물 3000t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경기도청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는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쓰레기 섬'이라는 치욕의 별명까지 얻었다. 제주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아서 그렇게 처치 곤란할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관광객 수의 급증이 더 큰 원

'쓰레기 섬'의 오명과 제2공항 문제

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년에 1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드나들면서 쓰레기만 아니라 생활하수, 교통, 범죄 등의 문제들을 야기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 제주도의 현실이다. 요즘의 최대 이슈인 제2공항 문제도 관광객 급증과 관련이 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제주도를 찾아오다보니 제주국제공항이 비좁고 혼잡한 공항으로 인식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니, 아예 공항을 하나 더 만들자는 계획으로 바뀌었다.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성산이 신공항예정지로 발표되었고, 마침내 지난 2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성산의 제2공항을 2035년에 개통하겠다고 보고되었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더 많은 관광객

유지가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관광객이 제주경제에 도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로 인해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도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감내하면서 '흔저 읍저'를 외쳐야 하는가. 1600만 관광객은 하와이나 오키나와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그만큼 관광 수입도 더 많다. 관광객 유치보다는 수준 높은 관광을 추구할 때다. 제주도의 인구도 크게 불어날 것 같지 않다. 2040년에 79만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7년부터는 하향 추세를 접어들 것이라고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했잖는가. 인구도 별로 늘지 않고, 관광객도 지금 정도만 온다면 제2공항 문제의 정답은 뻔하다. 게다가 최근에 정부가 제주공항을 양호한 공항으로 평가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제2공항

을 추진하는 정부부처)가 6월 28일 발표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제주공항은 '수속절차'에서 A등급, '수하물처리 정확성'에서 A등급, '공항이용 편리성'에서 B등급, '이용자 만족도'에서 '다소 만족'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특히 2016~2017년 D등급을 받았던 '공항이용 편리성'인 경우 지난해 B등급으로 적잖이 개선되었음에 눈이 번쩍 뜨인다. 공항합중과 편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국토부가 분석했는데, 이는 공항청사를 증축하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면 개선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주민인구 증가도 소폭이고, 관광객도 그만큼 늘었고, 공항이용의 불편함도 개선 가능한데 또 공항을 만든다고? 국비 5조 원을 퍼부으면서? 마을공동체를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사설

민선7기 2년차 원 도정의 성과와 과제

민선7기 원희룡 제주지사가 1일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목표로 지난 1년 ▷도민중심의 소통과 협치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라는 세부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정의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6기부터 이어져오던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제주공항 확장한계성과 도민 공론조사 불가'라는 명확한 입장을 바탕으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되면서 승통을 뒀고 포화상태에 이른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도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정부의 예산지원사업에 포함되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주 미래 먹거리로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하고 전기차

특구의 밑바탕이 될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도 전국 최초로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제도 많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 노력의 부족, 현안마다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제주자치도의회와의 협치 실종은 무소속 도지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경교등이 켜진 제주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는 민선 7기 2년차를 맞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새겨 들어야 할 과제입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준공후 미분양 공동주택이 750호를 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고 일자리 창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도민들도 편안하다는 신념으로 남은 3년 경제도지사로서 활약을 당부합니다. 이제는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입니다.

열린마당

'나나랜드'로의 초대



전 언 희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3학년

'네 기준에 날 맞추려 하지 마, 난 지금 내가 좋아하는 나야!' 이는 아이돌그룹 'itzy'의 데뷔곡이자 히트곡인 '달라달라'의 후렴구 중 한 부분이다. 매년 한 해의 트렌드 키워드를 뽑아 소개하는 책인 '트렌드 코리아'에서 올해 키워드 중 하나로 꼽힌 '나나랜드'에는 '나나랜드'들이 모여 산다. '나나랜드'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궁극의 자기애로 무장한 채 오로지 자신만의 시선으로 아웃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말하며, 그들이 사는 세상을 '나나랜드'라고 부른다. 나나랜드를 대표하는 캐나다의 백반증 모델, '위니 할로우'를 소개한다.

위니는 2014년 서바이벌 프로그램 '도전 슈퍼모델' 시즌 21 참가자로 자신의 피부질환인 백반증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대중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게 됐다. 이후 데뷔해 세계적인 탑 모델로 자리매김을 했고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위니는 말했다. "얼굴을 메이크업으로 가리고 싶진 않아요. 절대 내 외모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며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형화된 미의 기준과 같은 것들은 누군가에게만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델의 미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린 위니의 이야기처럼,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를 사랑하고 나답게 사는 것'이 멋있는 것으로, 본인만의 개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이다. 그렇기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부터라도 내 기준에 맞춰 사는 '나나랜드'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차고지증명제' 취약계층 위한 정책 필요

자원봉사자 인권교육 눈길
○...제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 알리-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해 눈길. 자원봉사센터는 1일 평생학습관 1층 강당에서 자원봉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또는 수혜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 친화적 자원봉사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 교육 예정.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자원봉사자 인권변화의 주체가 바로 자기자신임을 인지함으로써 자원봉사의 토대를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교육청 청렴 추진 상황 점검
○...제주도교육청이 오는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앞두고 '청렴 제주교육 추진 협력단' 회의를 개최. 이종필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이 주재해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본청 과장을 비롯해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감

사관, 일선학교 교직원 등 청렴 제주교육 추진 협력단원 20명이 참석. 이 감사관은 "공사 관리와 인사입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뢰받는 청렴시책을 추진해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단체장 의견 수렴
○...서귀포시지역 단체장들은 지난 27일 열린 교통정책 설명회에서 이달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원도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차 배려정책 등을 주문. 제주도 교통정책과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가 지역 단체장 30명을 초청해 진행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위협받는 보행권과 이면도로 불법 주차자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
참석자들은 또 "읍면지역에 차고지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간소화,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언급.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참여율 너무 낮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농어촌민박의 경쟁력을 높인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업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제주도는 농어촌민박의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제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한 운영자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이 모두 적합해야 지정됩니다. 그런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참여한 업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도내 농어촌민박은 4월 말 기준 3973곳(객실수 1만

914호)이 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전인증제 신청건수는 모두 164곳(4.1%)입니다. 실제 안전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은 39곳(0.9%)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것은 인증요건이 까다롭고 인증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안전인증제가 외면받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러자라도 지난 4월 도내 농어촌민박 대부분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범죄예방단진 결과 절반 정도가 '안전 B등급 이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에 투자해야 하는 민박업소의 부담이 적잖을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안전인증제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CCTV 설치비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 고
고부응(중앙대학교 교수) 아버지 제주고공 원보(향년 88세)께서 2019년 6월 29일 오후 11시 05분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1일(월)
발인일사: 2019년 7월 2일(화) 오전 8시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101분향실
장 차: 하귀리 공동묘지
부 인 박양숙
아 들 고부응 며느리 강희선
시 응 변민선
재 수 정은경
* 연락처 : 고부응 010-9174-4370
고시응 010-5294-9374
고재수 010-9075-1269
박양숙 010-2266-1867

evworld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1544-8236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대학병원 임상결과 1일 50성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8987, 010-57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당사에서 제조하는 편백 피톤치드 추출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미국 FDA화장품
심사기준 합격 판정 되었음
편백피톤치드 추출수는 인체에
무독성이며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질민지진드기·곰팡이·황색포도상
구균등에 탁월한 살균·살충·항균·
항중 작용은 물론 악취제거·세정
중후균·스트레스 완화 시켜줌
제주편백우드(영)
T. 064-725-0622
제주시 보배길 32-16(제주대학교병원 남쪽)
벤처기업·편백피톤치드 추출 전문기업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소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
01 원치용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